

##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

지봉구<sup>1\*</sup>, 김태구<sup>1</sup>, 이계희<sup>1</sup>  
<sup>1</sup>경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 Economic Impact of Tourism Industry in Korea -An Input-Output Analysis-

Bong-Gu Jee<sup>1</sup>, Taegoo Kim<sup>1</sup> and Gyehee Lee<sup>1</sup>

<sup>1</sup>Dept. of Tourism Management, Kyung Hee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은 관광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산업연관모형을 구축하고, 관광산업의 각종 유발계수를 산업간 비교분석하고자 2007년 산업연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403개 산업 세세분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28개 산업부문을 산업연관표를 재작성하여 관광산업이 포함된 산업연관표를 도출하였다. 작성된 산업연관모형은 생산자거래표, 수입거래표 등을 작성하여 구축하였고, 관광산업의 각종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산업간 비교하기 위하여 산업연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Abstract**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build up the model related to our industry, including the tourist industry. And all kinds of the inducement coefficients of the tourist industry were compared and analyzed among industries. In an analysis of economic effects on the tourist industry, the analysis related to industries is a useful method. Accordingly, the analysis related to industries was used in order to measure the relations of influence between the tourist industry and other ones.

**Key Words** : Input-Output Analysis, Tourism industry, Economic Impact

## 1. 서론

### 1.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세계관광수요는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경제의 증대 및 각국의 정책적 배려 등 제 요인에 의해 타 부분에 비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왔다[1].

관광기구(WTO)의 통계에 의하면 2004년 이후 꾸준한 증가를 보여 2009년 국제관광객 수는 8억 8천만 명으로 보고되었다.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던 세계 관광시장은 경기침체와 신종플루 등의 악재로 2008년에 비해 4.2% 감소하였지만 성장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2].

가처분소득의 증가와 여가시간의 증가로 인한 관광수요에 대한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주5일근무제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가로 인하여 관광산업은 국내

관광의 확산도 예상된다.

1960년대 초 경제개발계획의 실시로 부족한 외화를 충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광산업의 육성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결정자들은 관광산업의 외화소득과 이 소득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소득과의 관계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의 관광산업의 산업연관분석은 관광산업 여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이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의 관광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따라 중앙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측면이 있지만, 1990년대 중반의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관광산업의 지역연관분석으로 확장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제조업 분야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설비투자의 증가로 고용없는 성장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서비스산업, 특히,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

“본 연구는 2011년도 경희대학교 지원에 의한 결과임.” (KHU-20110066)

\*교신저자 : 지봉구(tourxpert@khu.ac.kr)

접수일 11년 06월 13일

수정일 (1차 11년 06월 30일, 2차 11년 07월 04일)

게재확정일 11년 07월 07일

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관광산업의 각종 지표를 도출함으로써 관광산업과 타산업 사이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 1.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대상연도는 한국은행의 2007년 연장표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산업연관표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산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관광산업을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2009년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2007년 산업연관표』 기본부문 403개 통합소분류 중에서 관광산업의 부분들을 하나의 총체적 개념으로 파악한 관광산업부문과, 17개 통합분류를 기준으로 통합한 28부문 산업연관표로 재작성하였다(표 1 참조).

둘째, 403개 부문에서 28개 부문으로 산업을 재분류하여 관광산업과 타산업부문과의 상호연관효과 및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3].

간에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판매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는다.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보통 1년) 동안의 이러한 산업간 거래관계를 일정한 원칙에 따라 행렬형식으로 기록한 통계표를 일컫는다. 산업연관분석 또는 투입산출분석은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하여 산업간 상호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11].

일반적으로 국민경제의 순환과정은 소득순환과 산업간 생산물순환의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소득순환은 소득의 발생으로부터 분배 및 처분과정 즉, 생산활동 결과로 발생한 국민소득이 이윤, 임금, 이자 등의 형태로 분배되어 소비재와 자본재의 구입이라는 처분활동을 거쳐 다시 다음의 생산과정으로 환류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에 반해 산업간 생산물순환은 생산부문 상호간의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를 나타내기 때문에 국민소득계정에서는 제외되나 산업간 연관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매우 유용하다[11].

산업연관분석은 산업연관표로부터 산출되는 투입계수를 기초로 한 산업간 상호의존관계분석이며, 산업연관분석을 위해 필요한 주요지표들은 다음과 같다.

## 2. 이론연구

### 2.1 산업연관분석의 개념

한 국가 경제에서 각 산업들은 생활활동을 위해 상호

### 2.2. 산업연관표상의 주요지표[11]

#### 2.2.1 투입계수

투입계수는 각 산업부문이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산업으로부터 구입한 각종 원재료,

[표 1] 관광산업 산업연관분석의 선행연구

[Table 1] The Literatures of IO Analysis to Tourism Industry

연구자	부문 분류
관광진흥법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객편의시설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숙박 및 음식점업, 운송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여행알선 및 운수 관련 서비스업, 기계장비 및 소모용품 임대업,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산업
최승이[11]	숙박업, 음식점업, 오락, 국내교통, 인삼, 의복류, 편견직물, 모피, 전자제품, 식료품, 인삼주, 귀금속보석류, 목재·나전칠기
한국관광공사[4]	숙박업, 음식점업, 교통·통신업, 문화오락서비스업, 쇼핑업
권경상[5]	숙박업, 음식점업, 교통·통신업, 문화오락서비스업, 쇼핑업
김규호[6]	소매, 음식점업, 숙박업, 철도여객운송업, 도로여객운송업, 기타 운수관련서비스업, 문화서비스업, 영화, 연극, 음악 및 기타예술, 운동 및 경기관련 서비스업, 기타 문화오락서비스업
이강욱류광훈[7]	숙박업, 음식점업, 도소매업, 교통·통신업, 문화오락서비스업, 쇼핑업
김대우·김홍식[8]	세계도자기 엑스포
정삼철·김종구[9]	숙박, 식음료, 교통, 쇼핑(소매업), 문화오락서비스
이강욱[10]	숙박, 식음료, 여객운송, 운수보조, 차량임대, 여행업, 운동경기, 문화공연, 오락·유흥, 소매
본 연구	음식점 및 숙박, 철도여객운송, 도로여객운송, 수상 및 항공운송, 운수보조서비스,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 기타오락서비스

연료 등 중간투입액을 총투입액으로 나눈 것으로 각 부문 생산물 1단위 생산에 필요한 각종 중간재 단위를 나타낸다.

투입계수는 각 산업부문의 생산활동에 있어서의 생산 기술구조, 즉, 투입과 산출의 함수관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물량단위의 거래표로부터 산출되는 것이 이상적이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액단위의 거래표로부터 산출 이용하게 된다.

### 2.2.2 중간투입율과 부가가치율

중간투입율은 한 산업의 생산을 위해 투입된 모든 중간투입내역의 합을 동 산업의 총투입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 2.2.3 생산유발계수

생산유발계수는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하였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산업부문에서 직/간접으로 유

발되는 생산액 수준을 의미하며, 생산유발계수표에서 각 산업의 열합계가 각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 1단위가 발생했을 때 전 산업부문에서 유발되는 직/간접 생산과급효과를 나타낸다.

### 2.2.4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여 각 산업간 상호의존관계 정도를 전산업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크기로 표시하는 것이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이다. 영향력계수는 어떤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할 때 전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즉, 후방연쇄효과 정도를 전산업 평균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나타내는 계수이다. 영향력계수가 나타내는 의미는 어떤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른 산업으로부터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전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의미한다.

[표 2] 관광산업의 생산유발, 영향력, 감응도계수

[Table 2] Inverse Matrix Coefficients to Tourism Industry

		생산유발계수		감응도계수 (전방연쇄효과)		영향력계수 (후방연쇄효과)	
		계수	순위	계수	순위	계수	순위
1	농림수산물	1.78	19	0.89	18	0.91	19
2	광산물	1.73	21	0.58	27	0.89	21
3	음식료품	2.10	8	0.95	14	1.08	8
4	섬유 및 가죽제품	2.06	11	0.81	19	1.06	11
5	목재 및 종이제품	2.03	14	1.05	9	1.04	14
6	인쇄 및 복제	2.06	10	0.67	22	1.06	10
7	석유 및 석탄제품	1.18	28	1.38	4	0.61	28
8	화학제품	2.06	9	1.92	2	1.06	9
9	비금속광물제품	2.04	13	0.73	21	1.05	13
10	제1차 금속제품	2.21	6	1.92	1	1.14	6
11	금속제품	2.39	3	0.96	13	1.23	3
12	일반기계	2.39	4	0.90	16	1.23	4
13	전기 및 전자기기	1.86	18	1.02	10	0.96	18
14	정밀기기	2.14	7	0.59	26	1.10	7
15	수송장비	2.40	2	0.99	12	1.23	2
16	기타제조업제품	2.21	5	0.64	23	1.14	5
17	전력,가스및 수도	1.47	27	1.08	8	0.76	27
18	건설	2.06	12	0.60	25	1.06	12
19	도소매	1.68	23	1.27	6	0.86	23
20	관광산업	1.73	20	1.33	5	0.89	20
21	운수 및 보관	1.87	17	0.89	17	0.96	17
22	통신 및 방송	1.88	16	0.91	15	0.97	16
23	금융 및 보험	1.70	22	1.24	7	0.87	22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55	26	1.76	3	0.80	26
25	공공행정 및 국방	1.57	24	0.53	28	0.81	24
26	교육 및 보건	1.57	25	0.62	24	0.81	25
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1.99	15	0.77	20	1.02	15
28	기타	2.66	1	1.00	11	1.37	1
전산업평균		1.94		1.00		1.00	

이는 각 산업의 생산유발계수의 열합계를 전산업 생산유발계수의 열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써, 다른 산업에 미치는 후방연쇄효과와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영향력계수는 생산유발계수가 클수록 크게 나타난다.

감응도계수는 모든 산업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각각 한 단위씩 발생할 때 특정산업이 받는 영향을 나타내는 감응도 계수는 전방연쇄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계수이다. 즉, 다른 산업의 생산을 위하여 중간재로서 투입되는 상대적 크기를 의미하는 감응도계수는 그 산업의 생산유발계수의 행의 합계를 전산업의 평균으로 나눈 값이다.

### 2.2.5 수입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수

각 산업부문의 생산활동을 위해 필요로 하는 중간재는 국산품뿐만 아니라 수입품에 의해서도 충당되기 때문에 최종수요의 발생에 따른 생산유발은 국산품유발과 수입품유발로 나뉘어 진다. 따라서, 최종수요와 수입과 관련시켜 최종수요 발생에 따른 수입유발 효과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최종수요 충족을 위하여 전체산업 생산활동에 중간재로서 유발되는 수입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수입유발계수이다.

산업연관표에서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산소모 및 순간접세로 구성되어 있다.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어떤 산업부문의 국내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할 때 각 산업에 파급되어 나타나는 직/간접적인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의미한다.

산업연관표에서 부가가치부문의 '피용자보수'는 개개인의 근로소득을 의미하며, 이것을 이용하면 최종수요의 추가발생으로 인하여 국민경제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유발효과를 의미하는 소득유발효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영업잉여는 부가가치 총액에서 피용자보수, 고정자산소모, 순간접세를 공제한 것으로, 각 산업부문의 기업잉여, 순지급이자, 토지에 대한 순지급임료 등으로 구성된다.

고정자산소모는 고정자산이 일정기간 동안 생산에 사용됨으로써 발생하는 물리적 감모, 진부화 및 일상적인 손실 등에 따른 가치감소를 말한다.

## 3. 주요지표

### 3.1 생산유발계수

생산유발계수는 투입계수행렬의 역행렬계수 합에 의

하여 도출된다. 생산유발계수의 분석결과, 국내 전산업 평균 생산유발계수는 1.94로 나타났다. 이는 최종수요 부문에서 1백만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에 1,940,000원의 직간접적인 생산유발효과가 국민경제에서 발생됨을 의미한다. 이를 각 산업부문별로 살펴보면, '기타(2.66)', '수송장비(2.40)', '금속제품(2.39)', '일반기계(2.39)', '기타제조업제품(2.2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광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1.73으로 나타나 전산업 평균(1.94)보다 낮은 20위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강욱의 연구[10] 결과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 3.2 영향력 및 감응도계수

산업별 영향력계수 분석결과, 영향력계수가 가장 큰 산업은 '기타(1.377)'로 나타났으며, '수송장비(1.235)', '기타 제조업제품(1.232)', '일반기계(1.231)'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관광산업은 영향력계수가 0.901로 '1'보다 낮아 28개 산업부문중 20위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후방연쇄효과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광산업의 영향력계수가 비교적 낮은 이유는 관광산업이 최종수요형 산업으로 생산에 따른 산업파급효과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응도 계수값은 일반적으로 해당 제품이 각 산업부문에 중간재로 널리 사용되는 산업일수록 감응도계수 값이 크게 나타난다. 전체 산업 가운데 '1차금속제품(1.918)'이 가장 높았고, '화학제품(1.916)',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1.760)', '석유 및 석탄제품(1.365)'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광산업의 감응도계수는 1.324로 28개 산업부문중 5위를 차지하였으며, 비교적 높은 감응도계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관광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음식점'과 '차량임대' 부문 등이 다른 산업의 중간재 생산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3.3 수입유발계수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 3.3.1 수입유발계수

2007년 기준 수입유발계수의 전산업 평균은 0.29로 나타났다. 산업부문별 분석결과, '석유 및 석탄제품(0.67)', '제1차 금속제품(0.50)', '전기 및 전자기기(0.46)', '화학제품(0.45)', '전력, 가스 및 수도(0.45)' 순으로 수입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산업의 수입유발계수는 0.30으로 전체 28개 산업 부문 중에서 15위에 해당되고, 전산업 평균 수입유발계수(0.29)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광교통부문이 수입유발계수가 높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10].

[표 3] 수입 및 부가가치유발계수  
 [Table 3] Imports Requirement Coefficients, Value Added Requirement Coefficients to Tourism Industry

		수입유발계수		부가가치	
		계수	순위	계수	순위
1	농림수산물	0.14	22	0.86	7
2	광산품	0.15	20	0.85	9
3	음식료품	0.24	16	0.76	12
4	섬유 및 가죽제품	0.32	10	0.68	19
5	목재 및 종이제품	0.38	6	0.62	23
6	인쇄 및 복제	0.20	19	0.80	10
7	석유 및 석탄제품	0.67	1	0.33	28
8	화학제품	0.45	4	0.55	25
9	비금속광물제품	0.31	14	0.69	15
10	제1차 금속제품	0.50	2	0.50	27
11	금속제품	0.32	11	0.68	18
12	일반기계	0.31	13	0.69	16
13	전기 및 전자기기	0.46	3	0.54	26
14	정밀기기	0.34	9	0.66	21
15	수송장비	0.35	7	0.65	22
16	기타제조업제품	0.31	12	0.69	17
17	전력,가스및 수도	0.45	5	0.55	24
18	건설	0.21	18	0.79	11
19	도소매	0.11	25	0.89	4
20	관광산업	0.30	15	0.71	14
21	운수 및 보관	0.21	17	0.74	13
22	통신 및 방송	0.13	23	0.87	6
23	금융 및 보험	0.06	28	0.94	1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07	27	0.93	2
25	공공행정 및 국방	0.12	24	0.88	5
26	교육 및 보건	0.11	26	0.89	3
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0.15	21	0.85	8
28	기타	0.34	8	0.66	20
전산업 평균		0.29	-	0.62	-

### 3.3.2 부가가치유발계수

전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 평균은 0.62로 나타났으며, 28개 산업부문 가운데 부가가치유발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산업은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0.94)’ 부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0.93)’, ‘교육 및 보건(0.89)’, ‘도소매(0.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광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71로 전산업 평균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28개 산업부문 가운데 14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 3.4 소득/영업잉여/고정자본소모 유발효과

### 3.4.1 소득유발계수

2007년 기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도출한 소득유발계수를 살펴보면, ‘교육 및 보건(0.627)’, ‘공공행정 및 국방(0.563)’, ‘사회 및 기타서비스(0.423)’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관광산업은 0.280으로 20위로 비교적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1995년 기준 산업연관표의 관광산업 소득유발계수(0.38027)과 2000년 기준 산업연관표의 소득유발계수(0.33554)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9].

### 3.4.2 영업잉여계수

전체 산업 평균 영업잉여계수는 0.197로 분석되었다. 산업부문별로는 ‘농림수산물(0.559)’이 가장 높았고, ‘금융 및 보험(0.418)’, ‘도소매(0.404)’, ‘광산품(0.40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광산업의 영업잉여계수는 0.223으로 전산업 평균 영업잉여계수 보다 높아 28개 산업 가운데 11위로 나타나 다른 산업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3.4.3 고정자본소모계수

전산업 평균 고정자본소모계수는 0.085로 나타났으며, ‘공공행정 및 사업서비스(0.227)’, ‘통신 및 방송(0.203)’, ‘전력, 가스 및 수도(0.186)’,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0.12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광산업부문의 고정자본소모계수는 0.093으로 전산업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8개 산업 가운데에서 15위로 나타났다.

## 5. 결론

본 연구는 관광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산업연관모형을 구축하고, 관광산업의 각종 유발계수를 산업간 비교 분석하고자 2007년 산업연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403개 산업 세세분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28개 산업부문으로 산업연관표를 재작성하여 관광산업이 포함된 산업연관표를 도출하였다. 작성된 산업연관모형은 생산자거래표, 수입거래표 등을 작성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소득,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유발효과  
 [Table 4] Value Added Requirement Coefficients to Tourism Industry

	소득계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계수	순위	계수	순위	계수	순위	
1	농림수산물	0.153	26	0.559	1	0.079	21
2	광산품	0.351	10	0.401	4	0.112	6
3	음식료품	0.208	24	0.294	6	0.074	24
4	섬유 및 가죽제품	0.331	14	0.175	20	0.074	23
5	목재 및 종이제품	0.284	19	0.175	21	0.096	12
6	인쇄 및 복제	0.391	5	0.210	15	0.101	7
7	석유 및 석탄제품	0.037	28	0.051	28	0.022	28
8	화학제품	0.219	23	0.169	24	0.092	17
9	비금속광물제품	0.299	18	0.225	9	0.118	5
10	제1차 금속제품	0.176	25	0.203	17	0.092	16
11	금속제품	0.326	15	0.222	12	0.097	11
12	일반기계	0.337	12	0.207	16	0.095	13
13	전기 및 전자기기	0.221	22	0.183	19	0.100	9
14	정밀기기	0.308	16	0.191	18	0.098	10
15	수송장비	0.307	17	0.170	23	0.100	8
16	기타제조업제품	0.357	9	0.168	25	0.079	22
17	전력,가스및 수도	0.145	27	0.170	22	0.186	3
18	건설	0.409	4	0.215	14	0.072	25
19	도소매	0.367	8	0.404	3	0.080	20
20	관광산업	0.280	20	0.223	11	0.093	15
21	운수 및 보관	0.369	7	0.266	7	0.072	26
22	통신 및 방송	0.338	11	0.250	8	0.203	2
23	금융 및 보험	0.369	6	0.418	2	0.065	27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332	13	0.367	5	0.121	4
25	공공행정 및 국방	0.563	2	0.067	27	0.227	1
26	교육 및 보건	0.627	1	0.152	26	0.087	18
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0.423	3	0.225	10	0.095	14
28	기타	0.268	21	0.217	13	0.085	19
	전산업평균	0.275	-	0.197	-	0.085	-

관광산업의 생산유발계수와 영향력계수는 1.73과 0.89로 28개 산업부문 중에서 20위로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방연관효과를 나타내는 감응도계수는 1.33으로 28개 산업부문 중에서 5위로 나타나 관광산업이 다른 산업부문의 중간재 생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산업의 수입유발계수는 0.30으로 전산업 평균(0.29)과 비슷한 수준으로 28개 산업중 15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광산업 중에서 교통부문이 유가상승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관광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71로 전산업 평균(0.62)보다 높아 28개 산업중에서 14위로 나타났다. 산업연관표에서 부가가치부문의 세부적인 효과는 소득유발계수가 0.280으로 20위, 영업잉여계수가 0.223으로 11위, 그리고, 고정자본소모가 0.093으로 15위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산업연관분석의 주요지표들은 선행연구 결과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첫째, 관광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차이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관광산업은 1990년대 이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정책적 우선순위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차이에 의하여 기존보다 관광산업과 다른 산업과의 영향관계가 달라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관광산업의 분류에 있어 선행연구와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기존 선행연구의 경우 관광산업과 여가산업의 산업범위를 구분없이 사용한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기존 선행연구는 관광산업이 과대 계상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의 영향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선행연구와 같은 여가산업분류를 통해 비교가능성을 높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원인분석을 통해 관광산업의 분야별 정책수립을 위한 정책지원의 근

거를 삼을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에서 정의되지 않은 관광산업을 재분류하는 과정에서 기존 연구들과 다른 자료를 바탕으로 사용한 분류상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산업분류와 다르게 관광산업을 분류함으로써 비교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경제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작성된 산업연관표이기 때문에 관광산업, 즉, 숙박산업, 외식산업, 여행산업, 교통산업 등과 같이 세분화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비교가능성과 세분화된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반영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Choi, S., Y., "An Input-Output Analysis of Tourism Industry Investment in Korea", Ph.d., Kook-Min University, 1986.
- [2]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Korea Tourism Annual Report, 2010.
- [3] Kang, D., I., and Ko, S., B., Input-Output Analysis to use Excel, Jeju University Press, 2007.
- [4] KNTO(Korea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An Input-Output Analysis of Tourism Industry, 1993.
- [5] Kwon, K., S., "A study on the Performance Measurement -Economic Impact and Environmental Impact", Ph.d., Han-Yang University, 1994.
- [6] Kim, K., H., "Economic Impact of Tourism in Regional Context: An Input-Output Analysis for Kyongju Economy", Ph. D., Kyonggi University, 1997.
- [7] Lee, K., W., & Ruh, K., H., Economic Impact of Tourism Industry in Korea : Input-Output Analysis, KTRI(Korea Tourism Research Institute), 1999.
- [8] Kim, D., W., & Kim, H., S., Economic Impact of 2001 World Ceramic Festival, KASCT, 2002.
- [9] Jung, S., C., and Kim, J., K., An Economic Impact Analysis of Regional Tourism Industry; The Case of Chungbuk Regions, Chungbuk Development Institute, 2004.
- [10] Lee, K., W., An Economic Impact Analysis of Tourism Industry in Korea,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2010.
- [11] The Bank of Korea, 2007 Input-Output Tables, 2009.

## 지 봉 구(Bong-Gu Jee)

[정회원]



- 1997년 2월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경영학석사)
- 2002년 8월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관광학박사)
- 2010년 2월 ~ 현재 : 경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연구교수

<관심분야>

관광정보, 관광의사결정, 관광전략

## 김 태 구(Taegoo Kim)

[정회원]



- 2002년 2월 : 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경영학석사)
- 2006년 2월 : 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2010년 2월 ~ 현재 : 경희대학교 관광학부 전임강사 (연구)

<관심분야>

관광환대산업부문 전략경영, 지식경영

## 이 계 희(Gyehee Lee)

[정회원]



- 1992년 5월 :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호텔경영학석사)
- 2001년 12월 : Purdue University (관광경영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경희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관심분야>

관광지 마케팅, 소비자 행동론